

한국드라마의 진화와 그 요건

이영기 | 대중문화평론가

드라마와 영화의 판세가 달라지고 있다. 영화만, 영화만 고집하던 톱스타들도 이제 드라마 출연제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물량공세를 앞세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들의 단독 행진은 이들을 단숨에 압도함과 동시에 일부 연령층에만 집중되는 우를 범함으로써 드라마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드라마는 우리 생활에서 실재하는 허구다. 튼튼한 외피에 탄탄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시청자는 기다린다.

한국 TV드라마의 변신

한국 TV드라마의 변신이 눈부시다. 제작규모와 스케일, 기술력,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며 극장 스크린 못지 않은 안방극장의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순식간에 풍선처럼 몸이 불어나 밤하늘로 등실 날아가 버린 심술쟁이 숙모처럼, 또는 셔츠와 바지가 동시에 우두둑 찢어지며 몇 초 만에 부풀어오르는 <헐크>의 근육처럼 엄청난 속도로 팽창 중이다.

20회 분량의 멜로 드라마에도 수십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회당 평균제작비 3억 원에 이르는 대하사극이 영화 못지 않은 스펙터클을 뽐내며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영화에나 쓰이던 블록버스터(Blockbuster)라는 단어는 이제 대형 드라마를 수식하는 가장 흔한 말이 됐다. 글자 그대로 담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관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대중적 소재와 뛰어난 첨단 효과, 배급의 장악력, 물량공세 등이 이제 드라마에도 거뜬히 통용되는 개념이 돼버린 것이다.

최근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로 KBS의 HD드라마 <해신>을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 최인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해상왕 장보고의 일대기를 다룬 이 드라마는 액션과 멜로를 적절히 버무린 퓨전사극으로 몇 주째 시청률 수위를 달리고 있다.

<해신>이 공표한 제작비는 총 150억 원. 전남 완도에 오픈 세트장을 건립하는 한편 두 달 동안 중국 상하이와 사막지대인 둔황에서 14회 분량을 찍어오는 등 사실성 있고 박진감 넘치는 스펙터클을 선보이고 있다. 최소한 돈이 없어 못 찍는 일은 없는 부자 드라마다.

한국 영화에서도 제작비 100억 원을 넘긴 것은 불과 2002년의 일이다. 장선우 감독, 임은경 주연의 판타지 영화 <성냥팔이소녀의 재림>이다. 난해한 구성과 비현

실적인 모티프로 관객몰이에는 실패했지만 당시 100억 원이라는 제작비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뿌렸다.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해신>의 경우 관객 5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말아톤>의 순 제작비 28억 원에 비교할 때 5배 이상의 돈이 들어간 셈이다.

드라마의 블록버스터화

3월 종영한 MBC 멜로드라마 <슬픈 연가> 역시 막대한 제작규모를 자랑한다. <해신>처럼 전투 장면이나 군중신이 많지도 않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한 오픈 세트를 건립하지도 않았다. 방영 회수도 20회로 단출하다. 그 런데도 제작비는 무려 70억 원에 달한다.

삼각관계를 축으로 하는 멜로 드라마에 수십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일은 흔치 않다. 물론 미국을 배경으로 호화로운 해외 로케이션을 많이 담았다 해도 블록버스터급 멜로 드라마라는 타이틀은 생경하기만 하다.

드라마의 블록버스터화는 외부 제작사들의 제작 참여로부터 비롯됐다. 방송사 자체 제작 드라마의 경우 세트와 야외를 오가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연속극의 범

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투자유치 능력과 자체 제작능력을 갖춘 외부 제작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서 드라마 제작환경은 상전벽해에 버금갈 만큼 일대 변화를 이뤘다. 대표적인 곳이 <해신>과 <슬픈 연가>를 제작한 김종학 프로덕션이다. 또 대형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는 싸이더스 HQ는 고현정의 10년 만의 복귀작 <봄날>을 제작했다. 이들 제작사들은 방송사에 비해 투자유치나 해외 수출 등에 있어 제약이 덜하고 운신의 폭이 넓다. 무엇보다 영화의 투자유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며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김종학 프로덕션은 영화계 최대 실력자로 꼽히는 강우석 감독의 시네마서비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싸이더스 HQ는 <역도산>, <살인의 추억>을 제작한 싸이더스 픽처스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실정이다.

출연료에서도 이제 수억 원을 받고 자존심을 세우는 영화배우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슬픈 연가>의 권상우, 김희선의 경우 회당 2,000만 원의 출연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로 손꼽히는 KBS의 HD드라마 <해신>

문화와 미술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인간.
 다시 말해 어떤 역사적, 장르적 분류와 규정에도 종속되지 않는 움직이는 사유,
 창의적 활동에 있어 쉬지 않고 유머와 기지를 작동시킬 수 있었던 사람,
 이런 것이 삶의 디자이너로서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뒤상이다.

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단 두 사람의 출연료가 제작비의 10분의 1을 넘어선 셈이다. <봄날>의 고현정도와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고액 출연료와 함께 시청률에 따른 갖가지 인센티브를 약속받고 촬영에 임했다. 갈수록 치솟는 출연료는 이제 영화와 비견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아시아권 나라들에서 '한류'로 통칭되는 한국 연예인들의 인기가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소수 톱스타들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출연료를 높게 산정할 수 있다. 4대 천왕으로 불리는 배용준, 이병헌, 원빈, 장동건의 경우 제작기회가 된다면 회당 1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출연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류 수요 국가에서 투자될 경우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상승할 수 있다.

이 같은 풍부한 자금 환경과 국내외의 주목은 영화 배우들의 드라마 U턴이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다. 수년 전만 해도 영화배우들에게 드라마 출연 계획을 물으면 "영화가 체질에 맞는 것 같다"는 애매한 대답으로 은연중 드라마의 열등함을 내비치지 않았던가. 드라마로 인기를 얻어 영화로 간 배우들까지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영화에만 전념하는 예를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이제 판세가 다르다. 영화만, 영화만 고집하던 톱스타들도 이제 드라마 출연제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실제로 김선아와 정준호 등은 출연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드라마로 떠서 영화로 가는 기존의 관행과 달리 영화로 떠서 드라마로 오는 대세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이는 한류에 있어 드라마가 영화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국제 스타로 발돋움하려면 드라마가 더 주효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드라마의 약진이 몰고 온 상승세는 안방극장을 더없



3월 중영한 MBC 멜로드라마 <슬픈 연가>

이 흥분시키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아예 없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드라마들이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버림으로써 결국 드라마의 단층화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공중파 채널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는 단막극, 일일극, 미니시리즈 등 형태적인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가족극, 멜로극, 시대극 등 내용 면에서도 폭넓은 계층의 욕구와 취향을 아우르는 것이 그 미덕이요 임무다. 그러나 몰량공세를 앞세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들의 단독 행진은 이들을 단순히 압도함과 동시에 일부 연령층에만 집중되는 우를 범하게 됨으로써 드라마의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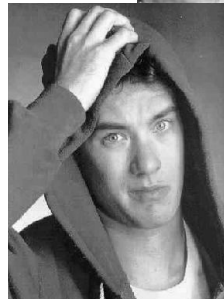
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돈이 많다고 해서 드라마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7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슬픈 연가>는 결국 제값을 못하고 10%의 시청률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제작도 전에 일본에 48억 원에 수출되면서 한류 드라마의 새 강자로 떠올랐으나 완성도 면에서 그 명성을 잇지 못했다.

애초 송승헌, 권상우, 김희선 등 내로라 하는 한류스타들을 내세운 수출용 드라마로 기획됐으나 송승헌의 군입대로 일단 김이 빠지고 말았다. 게다가 스타들의 얼굴에만 의존한 빈약한 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도 별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봄날> 역시 드라마 보다는 고현정을 보기 위한 초기 시청률만 반짝했을 뿐 신통치 못한 성적으로 막을 내렸다. 결국 '드라마는 이야기다'는 평범한 진리만을 입증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빠른 변화와 행동방식 보이고 있는 시청문화

현재 한국 드라마는 분명 약진의 발판 위에 놓여 있다. 문제는 외적인 성장과 함께 얼마나 내적 성숙을 동반하느냐의 문제다. 외형 못지 않게 참신한 내용과 구성을 연구하며 내면의 힘에도 똑같은 질량을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 최근 방송사들이 다시금 단막극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참신한 시놉시스 발굴에 노력하는 일은 일종의 반성이고 회귀다. 시청자들의 취향과 소통 욕구는 등한시한 채 '외모'에만 치우친 볼거리 드라마, 일부 스타들의 얼굴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드라마를 위한 드라마, 수출 등 일정 목적을 위해서만 기획되고 생산되는 공산품 드라마들은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드라마는 드라마로 충실해야 하며 주변의 모든 여건 역시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 함은 물론이다. 시청문화 역시 드라마 못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13세에서 30대 어른이 돼버린 영화 <빅>의 조수아역을 맡았던 톰 행크스

빠른 변화와 행동방식! 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기반한 표현 무한, 속도 무한의 드라마 따라잡기는 대중들이 드라마에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잘 말해준다. 드라마는 우리 생활에서 실재하는 허구다.

튼튼한 외피에 탄탄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시청자는 기다린다. 성숙을 겸하지 않은 무리한 성장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못한 법. 어느 날 갑자기 13세에서 30대 어른이 돼버린 영화 <빅>의 조수아(톰 행크스)처럼 정신의 성숙을 생략한 성장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한 일인가 말이다. 한국 드라마의 진정한 성장을 열심히 지켜볼 일이다. ✨